

# 교양출판과 '제주선언'

이중환

서울신문 논설위원·출판평론가

1938년 하버드대학 졸업식장에서 당대 저명인사였던 미국외교관 겸 작가 존 부찬(John Buchan)은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한다.

“지금 우리들은 그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고뇌에 찬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 밀바탕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우리들이 문화로 명명(命名)해 놓은 화해안(和解案)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들과 같이 교양 교육을 받은 인간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양교육이 어떤 지침도 되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디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이 한 문장을 인용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가 미래를 전망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교양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양교육이 어떤 지침도 되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교육을 받은 지성의 고뇌를 반추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60년전의 고뇌이고, 20세기가 끝나가는 오늘의 고뇌는 아니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문제는 제기됐다. 지난 11월7일 전국 21개 국·공립대 인문대학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제주대학에서 회의를 갖고 ‘인문학 제주선언’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치의 혼란과 부패, 부조리 등은 물질적 성장만을 추구한

데서 비롯됐다”고 진단하고, 대학은 마땅히 이같은 문제의 대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불행히도 “이성의 회복과 가치의 조화로운 실현을 목표로 하며 학문의 기반이 되는 인문학은 지금 대학에서 존재의 갈림길에 서있고” “대학의 학문·연구기능은 산업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직업교육으로 전락했다”고 개탄하면서 학과통합학이나 복수전공제라는 교육개혁방안은 인문학적 교양과목을 축소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 ‘교양교육을 받은 사람’ 그 자체를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동의할 만한 사실이다. 현재 한구석에 구겨져 들어가 명맥만 있고 있는 교양 과목마저도 실은 변질해 있다. 예컨대 교양 영어마저도 단 한편의 영문소설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여행이나 다니기 알맞은 영어회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니엘 벨은 60년대 ‘교양교육의 개혁’에서 하버드대의 교양교육을 또다시 반성했고, 앨런 블룸은 80년대 《미국정신의 종말》에서 미국교양인은 타문화에 대해 무지함으로써 편협된 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맹타를 했다. 세상은 어느 시대나 혼돈과 방황, 경박함과 부유(浮游)함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교양의 구축을 추구함으로써 정신의 균형을 찾아간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제주선언’은 그 균형을 지향하자

는 의지에서는 시의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이미 교양교육을 묵살하거나 아예 건너뛴 수십년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이 회복되거나 회생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안은 없다.

이 점은 또 한편 출판과 직결돼 있다. 교양교육을 위한 교양출판물을 이 시점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적절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대로 누가 보든 말든 몇권씩의 교양출판을 해온 출판사들이 10여 곳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세를 보자면 인문·사회과학에서까지 시의적으로 기능적 수요에만 매달려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한때는 과도처럼 사회주의서들에만 매달렸고, 근대의 목록도 없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곧장 뛰어들어 맥락조차 설명할 수 없는 파편적 지식들이 그나마 고급도서들로 치부되고 있기도 하다. 인문·사회과학서마저 선정적이 되고 있던 것이다. 이 정황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이론서마저 제대로 된 것 몇권 갖고 있지 못하다. 참으로 이상한 허술함을 만들어냈다.

1996년도 다 끝나가고 있다. 올해엔 더욱 교양출판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제주선언’의 갈 길은 멀기만 하다. ❖

# 출판저널

통권 제203호/1996년 11월20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환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박남정 마정미  
 최성일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김지옥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책이나 사무일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출판사 관리프로그램 “규장각”

[ 규 장 각 V3.4 ]

도서출판 수필  
☎ 715-7626

『자료년도: 1996』

1. 출 고, 반 물
2. 도 서 관 리
3. 서 집 관 리
4. 연 금 출 납
5. 회 원 관 리
6. 어 음 관 리
7. 기 타 사 항

제작: 수진시스템 ☎715-7626      1996년 5월14일 화요일

- 서점장부, 명세서, 도서관리
- 회원(DM), 현금, 어음관리
- 90년 개발후 120여 출판사에서 사용중
- 중소기업/단행본출판사에 잘맞음
- 데모용 프로그램 무상

■ 프로그램가격 : 33만원  
 ■ 개발판매 : 수진시스템(715-7626)  
 홍산전자오피스텔 705호

(컴퓨터, 프린터, 컴퓨터소모품 등 컴퓨터용품 열거공급)

## 다국어맥편집서비스

옥편, 다국어사전, 벽지관련 서적



한글판 Quark XPress에서 작업한 화일을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기타 다국어로 4도분관 출력이 가능한 Multi-Language One Step System 탄생— 한글·영어·중국어·일어·러시아어·스페인어 등을 한글판 Quark XPress 1개 화일내에서 작업하여 분관출력할 수 있는 MLOS System은 시간, 경제적인 측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외국어 인쇄매체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을 100퍼센트 만족시켜드립니다.

멀티피아 T.267-5269 F.278-6441  
 중구인현2가192-30 신성B/D 405

## 관련 양도합니다

- 주머니 속의 日本
  - 일본여행회화 및 가이드
  - 포켓판, 332면
- 고래는 옛날 육지를 걸어 다녔다
  - 고래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 번역도서, 신국판, 310면

연락처 : 도서출판 여름3미디어  
 Tel 051746-0145(오후2시 이후)